

강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지역경제 성장동력 '부상'



2021년 6월 완공예정인 푸소센터 내부 조감도.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 정돼 추진중인 강진군의 농촌신활력

농촌 민박·체험 결합된 여행상품 '푸소(FUSO)' 70억 원 투자할 계획

플러스사업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강진 웰니스 FUSO산업, 건강한 관광도시를 만들다'라는 주제로 농촌 민박과 체험이 결합된 군 고유의 여행상품인 '푸소(FUSO)'를 통해 교육·생산·체험·판매 등 통합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

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사업이다. 군은 사업추진을 위해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앞으로 푸소센터 신축, 웰니스 푸소 연계기반 구축, 웰니스 푸소 상품개발, 웰니스 푸소 관광명소화, 웰니스 푸소 산업 추진체계 구축 등에 70억 원을 집

중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단장 김치형)에서는 푸소 통합 홈페이지 구축, 푸소 캐릭터 및 브랜드 이미지 통합화 작업,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체험농장 발굴·육성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 밖에도 푸소 아카데미 마스터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가양주(막걸리 제조)교육을 준비 중에 있다. 한편, 내년 6월 완공 예정인 푸소센터는 종합운동장 내 1,105㎡ 규모로 건설되며 주요 공간으로 홍보전시관, 무인카페테리아, 공동세탁실, 요리 실

습실, 교육관, 다목적 강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센터가 완공되면 푸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거점 역할 뿐만 아니라 여러 편의시설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군은 본 사업으로 새로운 농촌관광 모델 정착 및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을 통해 농촌의 잠재적 자원과 관광과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 분리배출 거점수거대생활쓰레기 걱정 덜어

활용수거함·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등 마련



장흥군이 최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거점수거대 15곳을 설치해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장흥읍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되어온 생활쓰레

기 분리배출 거점수거대 설치사업은 장흥군 민선7기 3대 역점시책 중 '깨끗한 장흥만들기' 일환으로 시행돼 왔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거점수거대는 재활용수거함, 일반쓰레기 수거함, 음

식물쓰레기 수거함, 폐형광등·건전지 수거함 등이 마련돼 있다. 주민들의 자율적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수거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에도 효과를 내는 등 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거점수거대 설치를 통한 주민편의를 위하여 국비 및 도비확보와 군비확보 등 다각도로 재원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정종순 군수는 "2020년 장흥읍 5개소 추가설치는 물론, 2021년 또한 군비재원을 마련하여 전 읍면에 확대 실시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장흥 용산면, 언택트 관광지 '소등섬 둘레길' 조성

내년부터 30억 이내 사업비 투입...관광객 편의시설로



장흥군은 용산면 남포마을 소등섬 권역 관광지원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장흥읍 최초 읍·면 대상 공모사업인 2021년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사업에 '용산면 소등섬 둘

레길 조성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소등섬 권역에 장흥을 대표하는 언택트 시대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2021년 완공 예정인 남포·장재간 지방도 개설에 따른 유동인구를 관광객으로 유인하는 관광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등섬 둘레길 조성사업'은 기존 해맞이, 사진촬영 등 관광 명소로 기능해 온 소등섬 일대에 둘레길, 전망대, 야간경관,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2021년부터 약 30

억 이내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주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한 주변 환경정비와 휴게시설 설치도 병행 추진한다. 지난 6월 남포항 주변 어민쉼터(비가림, 가로등 설치 등) 조성사업, 9월 어선피항지 하상정리 사업 등을 통해 주변 환경정비를 완료하였고, 소공원 내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을 연내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산정마을 일대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형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완도군, 214억 투입하여 외판섬 식수난 해결한다

2021년까지 해저관로·육상관로·가압장 등 설치



완도군은 섬 지역의 고질적인 식수난을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일 총도 등 5개 외판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지난 9월 착수했으며, 사업 대상지는 금일읍 총도·신도, 군외면 사후도·고마도, 금당 비견도

등 외판 섬이다. 오는 2021년까지 총 사업비 214억 원을 투입해 해저관로 7.9km, 육상관로 6.4km와 가압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주에는 군외면 사후도와 고마도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나머지 섬은 다음 주에 열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생활용수를 지하수와 해수 담수화에 의지했던 것에서 벗어나 2022년부터는 지방상수도에서 공급되는 맑고 깨끗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완도=김광수기자

진도군,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추진

100% 국비 사업...270가구 단열·창호·보일러 교체 등

진도군이 에너지 취약계층 270여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진도군에 따르면 단열공사, 창호공사, 보일러 교체, 바닥공사 등 에너지 효율개선을 지원해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100% 국비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및 노후 보일러 등 에너지 사용 환경이 열악한 가구와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또 폭염에 대비한 창호 일체형 에어컨 등 에너지 절감형 냉방기기 지원 등 단열·창호·바닥공사·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효율 시공은 가구당 평균 200만원(최대 3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가구로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방문조사 후 현재 대상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이번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개선되



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책과 함께 즐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